산속하고 침절한 은행
동양지축은행
Tel.(062)226-0180

光州日報

제17517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6년 8월 4일 (음력 7월 11일) 금요일

"왜덕산에 조상 묻어준 인정에 감복"

日수군 후손들, 진도 보은의 방문

명량해전서 수장된 사체 100여구
진도 백성들이 수습, 장사 지내줘
15일 현지서 진혼제…감사 뜻 전달

7년 조일전쟁(朝日戰爭 : 임진왜란·정유재란)의 소용돌이 속 진도 왜덕산에 얽힌 조선백성들의 인정이 400년이 지난 지금 한일 양국 후손들의 화해와 우정의 만남으로 이어진다.

전란을 통틀어 가장 극적인 전투인 명량해전에서 명장 이순신에 의해 대패한 일본수군은 용틀임하는 울돌목의 물살에 수장됐다. 그러나 당시 진도백성들은 해변에 떠밀려온 사체 100여구를 수습해 마을 언덕에 장사를 치러줌으로써 원귀가 될뻔한 이름없는 왜군들의 넋을 달랬다.

진도군 고군면 내동리에 있는 이 언덕은 '일본군에 덕을 베풀었다'는 뜻에서 '왜덕산(倭德山)'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400여년이 지난 지금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일본 수군의 후손 20여명이 오는 15일 진도 왜덕산을 방문한다.

방문단은 일본 시코쿠 에이메현 이마바리 지역 출신으로 정유재란에 참전한 구루시마(來島) 장군 현창보존회 임원과 히로시마 수도대학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구루시마 장군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왜덕산에서 조상의 넋을 기리고, 적군의 주검을 거둬준 진도 군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할 계획이다.

구루시마 장군은 왜선 400여척을 지휘한 6명의 장군 가운데 한 명으로, 충무공의 전술에 말려 2천 500여명의 병사들과 함께 명량해역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왜덕산 공동묘지는 개간과정에서 일부가 멸실됐고, 현재 칡넝쿨과 쓰레기 더미에 묻혀있어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왜군의 묘 50여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왜덕산은 지난 2003년 진도 향토사가인 박주언(61)씨가 내동리 주민 이기수(80)씨의 증언을 듣고 2004년 '진도사람들'이라는 잡지에 기고하면서 외부에 처음 밝혀졌다. 이후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수도대학 히구마 교수가 진도를 방문했다가 박씨로부터 왜덕산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이번 구루시마 장군 후손들의 방문을 성사시킨 것이다.

박씨는 "왜덕산 공동묘지는 우리 민족의 높은 도덕성을 세계에 알리는 증거가 될 것"이라며 "왜덕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정리와 함께 공동묘지를 유적지로 관리할 경우 수군 후손들의 정례적인 방문 뿐 아니라 일반 일본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만드리 풍년제 3일 오전 광주시 서구 세하동 세동마을 들녘에서 '제8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가 열렸다. 옛 김매기를 재현한 농민들이 흥겨운 가락에 맞춰 풍년을 기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재인 법무 안된다"

지역민들 "또 코드인사… 국민 뜻 무시"

김병준 교육부총리 사퇴 파문에 이어 법무장관 인선을 놓고 당·청이 대립의 날을 세워 또 다시 회오리를 일으킬 '태풍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를 바라보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법무장관 인선이 청와대 코드가 아닌 국민여론 코드에 맞춰야 하며 국정의 화두가 민생문제로 모아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3일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춘추관을 찾아 "참여정부의 원칙과 기조에 동의하는 분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요건"이라며 문재인 전 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정치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병완 실장은 이어 "(여당에서) 능력도 인품도 훌륭한데 (문재인 전 수석은 법무장관으로)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인사에 있어서 능력있고 인품이 훌륭하면 그 이상 무슨 자격이 필요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청와대의 기류와는 달리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의 코드 인사는 민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우선 열린우리당을 이끌고 있는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에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이번 인사 파동을 바라보는 표정은 짜증스럽다.

참여정부가 폭 넓게 여론을 수렴한 뒤 철저한 인사 검증을 거쳐 국민의 신망을 받는 인사를 기용하기 보다는 코드 인사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알 림

'2006 조선대 시샤팡마 원정대'
히말라야 오른다

개교60주년 기념, 오는 15일 현지 파견

조선대학교는 개교 60주년을 맞이 오는 15일 중국령 티베트고원의 히말라야 시샤팡마(Shishapangma 8,027m)에 원정대를 파견합니다. 광주일보가 후원하는 이번 원정은 광주·전남을 짊어지고 나갈 대학생들에게 도전 정신과 패기를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1966년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신광철 원정대장을 비롯한 5명의 대원들은 오는 9월 28일까지 45일동안 '신의 기차' 시샤팡마 남벽에 '남도 산악인'의 투혼을 새기고 돌아올 것입니다.

발대식은 오는 10일 오후 5시 조선대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2006 조선대 시샤팡마 원정대' (단장 전의곤 교수)의 야심찬 도전에 아낌없는 많은 성원 바랍니다.

원정대 홈페이지(http://www.cuac.or.kr/조선대 산악회)

주 최 : 조선대학교, 조선대 총동창회
주 관 : 조선대 산악회, 조선대 산악연맹OB
후 원 : 광주일보

지난달 30일 해남을 방문, 고산 유물전시관을 둘러보는 김용옥씨.

해남에 '도올서원' 연다

김용옥씨, 郡에 제안

고산 윤선도 유적지이자 시인 묵객들의 산실로 유명한 해남군 해남읍 연동마을에 김용옥의 '도올서원'이 세워질 전망이다. 도올서원 건립논의는 최근 자신의 뿌리를 찾아 해남을 찾은 도올 김용옥씨의 제안으로 본격화됐다. 도올은 지난달 29·30일 이틀간 해남군을 방문, 군 관계자들에게 해남 도올서원을 건립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도올은 "서원을 세워 예술가와 학자들의 교류 및 담론의 장으로 활용하고 방학기간 등을 이용,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정기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도올이 해남에 서원 건립을 추진하려는 것은 해남과의 각별한 인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올에 따르면 증조부가 해남 현감을 지냈으며 북평 남창과 옥천 흑천, 화산 방축 등 4곳에 선산이 있다는 것.

이같은 도올의 제안에 대해 해남군은 환영일색이다. 군 관계자는 "도올의 명성과 학문적 깊이에 맞는 훌륭한 서원이 들어선다면 해남이 학문 토론의 장으로 새롭게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호남 비하' 광명시장 한나라 탈당

'호남 비하' 발언과 영암군과의 자매결연 일방중단 통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효선 광명시장이 3일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염창동 당사에서 황우여 사무총장을 만나 "저로 인해 한나라당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탈당을 결심했다"며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로써 5·31 지방선거 이후 소속 정당을 떠난 첫번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기록됐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이 시장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고 있는 시장직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후식기자 who@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sam-c.ac.kr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 物價情報
http://www.kpi.or.kr
한국물가정보